새로 수장 바뀐 중기부 산하기관 2題

"중소벤처 '경제의 중심' 만들 것 중진공, 국정목표 달성에 올인"

강석진 중진공이사장 취임 첫 행보
경남 항공기부품 제조기업 방문
규제개혁 등 기관 4대방향 제시
임직원 화합 '원팀' 청사진 밝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스템을 방문해 이 회사 김태형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새 수장에 지난 1일 취임한 강석진 이사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부 공식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석진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엔 경남 진주 뿌리산업단지에 있는 항공기용 부품 제조기업인 스템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스템은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민항기, 군용기 등 항공기 전 분야 부품의 가공과 조립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혁신기업이다.

강 이사장은 스템 김태형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항공우주 분야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소통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중진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과 후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발전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원팀' 청사진도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7·38대 거창군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제20대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을 역임했다. 특히,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정책과 행정,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진공은 1979년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 집행을 비롯해 기업 스케일업, 수출·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자생력 갖춘 혁신생태계 조성에 만전"

김영신 기정원장 취임·첫 업무
서울 등 지방중기청장 두루 역임
中企현장 이해도·해결역량 갖춰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임 원장이 지난 1일 세종 본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신임 원장에 중소기업 정책 및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김영신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3일 기정원에 따르면 김영신 신임 원장은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지금의 복합적 경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견인의 역할을 전략·성과·효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민간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중기부(중소기업청 포함)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면서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특히 김 원장은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을 두루 역임하고,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거쳐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사항 해결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기정원은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이듬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문을 연 뒤 2006년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이들 사업 외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7년 ▲R&D 지원 후 상장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100개 이상 조성 ▲지역 혁신형기업 42% 달성 ▲고객중심 경영지수 '탁월' 등급 달성 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전을 거쳐 현재는 세종시에 터를 잡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佛 로레알, 뷰티테크기업 육성

17일까지 中企·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뷰티테크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이영 장관과 라베르노스 로레알 그룹 R&D 부회장이 파리에서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뷰티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접수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공모 과제는 개인화에 기반한 ▲자외선 차단 ▲혼합현실(MR) 기반 피부관리 디바이스 ▲피부개선 약물전달 ▲피부 관련 작용 메커니즘과 성능 파악 모델로, 중진공과 로레알 코리아가 함께 선정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로레알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빅뱅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조성되면 국제공동 R&D 등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빅뱅 프로그램은 로레알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로레알 그룹과 서울 및 파리에서의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중진공의 정책자금, 파리 현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해외 클러스터,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샘,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서울시장상

온실가스 배출 관리강화 등 성과 인정

한샘 직원들이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한샘

한샘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3일 한샘에 따르면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한샘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 분야에선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샘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준을 협력사 등에서의 간접 배출까지 관리하는 '스코프(Scope) 3'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세계적 기후변화 평가 비영리 기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회 분야에선 임직원 교육훈련 및 복지 강화와 동반성장 활동 등 내부 운영과 노후 소방서 리모델링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배구조 분야에선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7개 소위원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체계를 인정받았다. 한샘은 지난해 총 1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44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향후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등을 넘어 재무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ESG 경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샘은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를 수록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창호 수퍼세이브' 리뉴얼 출시

LX하우시스가 가을 인테리어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를 대표하는 고단열 창호 시리즈 'LX Z:IN(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사진)의 리뉴얼 신제품을 선보였다.

3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수퍼세이브'는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내 창호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면서 단열·기밀 등 창호의 기본 성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객 편의성까지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리뉴얼한 수퍼세이브 창호는 기본형 '수퍼세이브'와 고급형 '수퍼세이브Plus(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했다. 기존에 '수퍼세이브 3·5·7' 등 세 가지에서 고객들이 창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단순했다.

기능 측면에선 기본형과 고급형 모두 더블 로이유리 기본 적용 및 창과 창이 겹치는 부분의 틈새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윈드클로저' 적용 등을 통해 창호 성능의 기본인 단열과 차폐, 기밀 성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중창으로 설치하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한다. /김승호 기자